

한화 최원호 감독대행 “14연패 끊기 위해 집중”

팀 타율·평균자책점 끝까지...수습 중책
“2군 선수에 기회 주고 분위기 바꿀 것”



최원호 감독 대행

최원호 한화 이글스 감독대행(47)은 14연패에 빠지며 무너진 팀을 되살려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한화는 5월 23일 창원 NC 다이노스 전부터 이달 7일 대전 NC전까지 14경기를 연달아 패하며 구단의 단일시즌 최다 연패 신기록까지 경신하는 불명예를 썼다. 한용덕 감독은 성적부진의 책임을 지고 7일 경기 직후 퇴진했다. 합계운 상황에서 2군 감독으로 선수육성에 힘쓰던 최 감독대행이 배턴을 이어받은 것이다.

최 감독대행은 인천고와 단국대를 졸업하고 1996년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한 이후 LG 트윈스를 거치며 2009년까지 선수생활을 했다. 1998년(10승)과 2005년(13승) 등 2차례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두며 핵심 선발투수로서 역할을 해냈다. 은퇴 이후에는 LG 2군 투수코치와 SBS스포츠 해설위원을 지냈고, 야구에 대한 과학적·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는 혁신적 야구인으로 인정받아 KBO 기술위원과 국가대표팀 코치로 발탁되기도 했다.

이제는 한화 1군의 재건에 힘써야 한다. 14연패 기간 팀 타율(0.207)과 평균자책점(7.96)은 10개 구단 중 최하위였고, 실점(120점)이 득점(36점)의 4배에 육박할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이에 최 감독대행은 “긴 연패에 팀도 어수선한 상황인데 일단 연패를 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2군에서 오랫동안 젊은 선수들을 지켜본 만큼 새 얼굴을 과감히 기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직접 확인한 좋은 자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당장 2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 최 감독대행은 “2군 선수들이 1군 경기에 투입되면 긴장할 수도 있지만, 무관중 경기 중이라 부담이 조금은 덜할 것”이라며 “활력 넘치는 2군 선수들이 뛰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기대했다.

2군과 달리 1군은 성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냉혹한 세계다. 최 감독대행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는 “2군은 과정에 충실해야 하지만, 1군은 결과를 내야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며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쫓는다고 해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일단 과정에 충실 하되 그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책임 모르쇠’ 뻔뻔한 프런트야구

리그 4년연속 ‘전반기 감독 교체’ 동반퇴진은 롯데 이윤원 단장 뿐 선수출신 단장시대, 밀그림 책임 성적 부진엔 감독만 ‘파리 목숨’

프로야구단 감독, 국내에선 열 명만 누리는 선택받은 직업이다. 스포트라이트에 어울리는 권함과 영광, 그리고 책임이 함께 주어진다. 이 때문에 리더십 교체는 구단에서도 수년간의 장기적 플랜을 갖고 신중히 진행하는 게 도리다. 하지만 작금의 야구판에서 감독 교체는 손쉬운 면피 수단으로 전락했다. 한화 이글스의 행태가 이를 증명한다.

한화는 7일 대전 NC 다이노스전 종료 후 한용덕 감독의 자진사퇴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다. ‘사실상 결질’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퇴 하루 전 불거진 핵심 코치진 말소 후 즉각적으로 아무도 풀업하지 않은 선택부터 한 감독의 마지막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작별인사마저 최악이었다. 한화는 8일 최원호 퓨처스(2군) 팀 감독에게 대행을 맡기는 보도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했다. 프런트 야구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전날 한 감독의 용퇴 사실은 현장의 기자들에게만 전달했다. 최 대행 선임 보도자료에 한 감독 관련 언급은 한 단어도 없었다. 구단의 공식입장만 따져보면 전임 감독이 팀을 떠난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대행만 소개한 꼴이다. 길었던 암흑기를 끊은 사령탑에게 마지막 예우를 다할 기회마저 놓쳤다.

비단 한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KBO 리그 전체로 보면 전반기에 사령탑을 퇴진시킨 선택은 올해로 4년 연속이다. 2017년 5월 22일 김성근 감독(한화)을 시작으로 2018년 6월 4일 김경문 감독(NC), 2019년 5월 16일 김기태 감독(KIA 타이거즈), 7월 19일 양상문 감독(롯데 자이언츠)이 전반기 내에 옷을 벗었다. 구단의 10년 농사를 두고 신중해야 할 감독 교체가 이제는 면피 수단으로 전락한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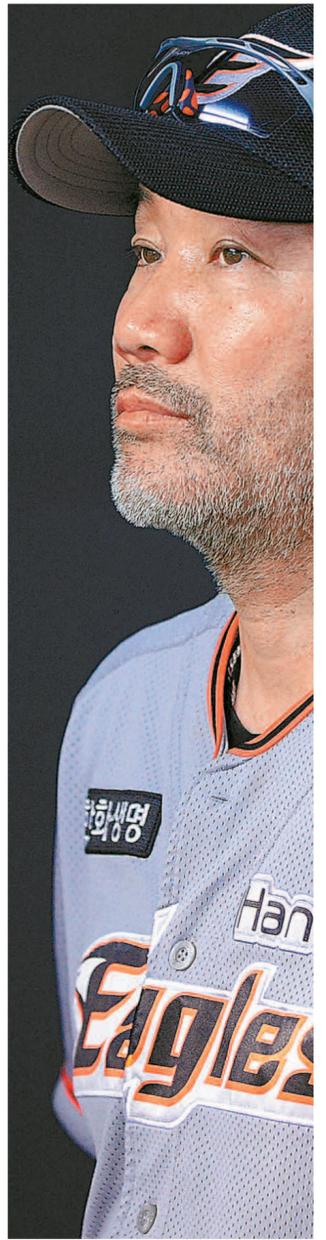
감독을 데려오는 주체는 프런트다. 그

라나 최근 4년간 전반기에 사령탑의 옷을 벗은 4개 팀 중 프런트도 책임을 함께 느낀 것은 지난해 롯데가 유일하다. 당시 롯데에선 양 감독과 함께 이윤원 단장이 동반 퇴진했고, 새 판 짜기에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가 9월 성민규 단장, 10월 허문회 감독 선임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사례에서 프런트는 뒷짐만 진 채 현장 리더십에만 책임을 물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선수 출신 단장이 리그의 트렌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현장이 전권을 휘두르던 과거에서 벗어나 프런트가 밀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도다. 트레이드, 프리에이전트(FA) 영입 풍경도 적극적으로 변했다. 눈앞의 성과를 냈을 때 단장들은 자신의 치적을 과시한다. 하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책임은 현장에만 지우고 있다.

성적이 나지 않아 옷을 벗어야 하는 감독에게 부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밀그림을 그려준 이는 누구일까. 열매는 단장이,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것이 프런트 야구일까.

ing17@donga.com



한화 한용덕 감독은 7일 대전 NC전을 끝으로 물러났다. 14연패를 당하는 동안 수차례 난맥상을 노출한 가운데 한화 구단은 명확한 이유 또는 배경 설명 없이 감독의 퇴진만을 압박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책임은 감독, 열매는 단장의 전유물처럼 변해버린 KBO리그의 씁쓸한 현실이 또 다시 입증됐다. 스포츠동아DB

선수층 강화 외치면서 외부 FA 영입 ‘0명’...한화의 두 얼굴

전력 위한 투자 없이 결과만 쫓아

과정 없이 결과를 쫓고 있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화 이글스 한용덕 감독은 7일 구단의 단일시즌 최다 14연패, 최하위(7승23패) 추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8일 최원호 퓨처스(2군) 감독에게 1군 지휘봉을 맡긴 한화로서는 불과 3시즌 만에 다시 감독대행 체제를 꾸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한화 구단의 운영 방침은 ‘리빌딩’이다. 2018시즌 한 전 감독과 손을 잡은 배경에도 새로운 얼굴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한화 출신으로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전 감독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젊은 선수들을 찾아주길 기대했다. 실제로 한 전 감독은 취임 첫 해 고졸 신인이던 내야수 정은원을 발굴

하는 성과도 냈다. 하지만 베테랑의 뒷받침이 없는 리빌딩은 급세 흔들렸고, 구단은 눈앞의 저조한 성적을 감내하지 못했다.

더욱이 선수층 강화를 외치면서도 한화 구단은 외부전력 수혈에 소극적이였다. 한 전 감독이 사령탑을 맡는 동안 외부 프리에이전트(FA) 영입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마무리투수 정우람, 윤규진, 김태균, 이성열 등 내부 FA들을 모두 놓려 앉혔지만 이를 제외한 전력보강은 미미했다. 2차 드래프트 또는 트레이드로 변화를 꾀하긴 했지만, 하위권을 점전하는 팀 전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동력으로는 한참 미흡했다. 결과를 바꿨던 구단의 투자는 선행되지 않았다.

한 전 감독의 퇴진을 두고 정민철 단

장은 “연패가 길어진다 것은 꼭 감독님의 잘못이 아니라 팀 전체의 과오”라고 짚었지만, 자진사퇴로 포장한 결론이 나기까지 어수선한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다. 6일 대전 NC 다이노스전을 앞두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1군에서 제외됐던 정형석 타격코치와 박정진 불펜코치는 8일 최원호 감독대행과 함께 1군 코칭스태프에 복귀하기도 했다.

한화는 최 대행을 선임하면서 “팀 분위기 쇄신과 전력 재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시즌부터 2군을 지휘한 최 대행은 ‘리빌딩’의 과제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어서 팀을 추스르는 것이 상책이다. 빠른 시간 안에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정 단장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서대명 기자 seody3062@donga.com

포렌즈 고선명 편광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끼고 싶어도 안경... 때문에?

2가지 색상을 다드립니다

BLACK

BROWN

UV 99.9차단

안경위에 착용가능

특별사은품 2중 택1

LED충전식 접이스탠드

LED 슬라이드 캠핑용 랜턴

폴라르는 재미

홈쇼핑 빅히트 제품 특가판매 가격 49,800원
제품문의 070-8623-8245 010-2471-8245

하나님의 약속

-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결론내신 너무 쉬운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
 -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외)
-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 평생 예배 드려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 평생 설교를 들어도 자신이 믿는 복음을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 교회 생활을 함께 극복하고자 합니다.

한국복음회복운동
010-3708-8138

화랑급매

현재 운영중인 "미술관" "화랑" 인수하실 분?

부분별 최저가 판매 가능함.
근현대, 고미술 및 민화, 서양화 목기, 수석 도자작품 등 (한·중·일 작품 골동 예술품 다수 보유하고 있음)

★ 운보 김기창 선생님(춘향도) 걸작작품 300호 소장하고 있음

사정상 급매

02)2231-5490, 5491